

## 관계고양지각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최진희 · 구민경 · 최인철<sup>†</sup>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환상이 관계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1에서는,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전형적인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보다, 그리고 배우자가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고양지각이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현재 배우자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이상화(idealization)과정을 통해 이러한 환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 1을 반복 검증하였으며 부부관계에서와 동일한 패턴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관계고양지각, 만족도, 이상화, 긍정적 환상

*"Nothing is easier than self-deceit. For what each man wishes, that he also believes to be true.(Demosthenes)"*

사람들은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싶어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자신의 우월성에 관한 것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강한 자기고양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동기로 인하여 심리학자들이 '환상(illusion)<sup>1)</sup>'이라고까지 부르는 자기고양지각을 매우 빈번하게 보인다(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자기고양동기는 사람들의 지각과정(Erdelyi, 1974), 기억과정(Greenwald & Pratkanis, 1984), 그리고 귀인과정(Lerner, 1980; Miller & Ross, 1975; Tetlock & Levi, 1982; Zuckerman, 1979) 등의 다양한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정보를 부정적인 성격정보보다 더 쉽게 회상하고, 그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며(Kuiper & Derry, 1982; Kuiper & MacDonald, 1982; Kuiper, Olinger, MacDonald, & Shaw, 1985),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과정 1년차 과제로 수행되었다.

<sup>†</sup> 교신저자 : 최인철(151-742, 서울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ichoi@snu.ac.kr)

억하는 경향이 있다(Crary, 1966). 또한 긍정적인 결과는 자신의 내부로, 부정적인 결과는 자신의 외부로 귀인하며(Bradley, 1978; Miller & Ross, 1975; Ross & Fletcher, 1985; Zuckerman, 1979), 긍정적인 성격특질이 부정적인 성격특질보다 자신을 더 잘 기술한다고 생각한다(Alicke, 1985; Brown, 1986).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믿으며(Campbell, 1986; Harackiewicz, Sansone, & Manderlink, 1985; Lewicki, 1984; Rosenberg, 1979), 자신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능력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비해 그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한다(Conway & Ross, 1984).

이러한 자기고양동기로 인해 나타나는 편향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균 이상 효과(the better-than-average effect)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능력(Campbell, 1986; Larwood & Whittaker, 1977)이나 성격특질(Alicke, 1985; Dunning, Meyerowitz, & Holzberg, 1989)을 평정할 때뿐만 아니라 행동(Allison, Messick, & Goethals, 1989; Messick, Bloom, Boldizar, & Samuelson, 1985), 건강(Larwood, 1978; Weinstein, 1980), 사회규범의 준수가능성(Codol, 1975)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미국 교수들 중 94%가 자신이 평균적인 교수들보다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고(Cross, 1977),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자신이 거짓말을 할 확률보다 3배정도 더 높다고 믿으며(Rosenblatt, 1993), 호주의 직장인들 중에서는 단지 1%가 자신의 수행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한다(Headley & Wearing, 1987).

#### 자기고양지각의 확장 : 관계고양지각

위에서 언급한 자기고양지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때로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기도 한다(Brown, 1986; Hall & Taylor, 1976; Taylor & Koivumaki, 1976). 예를 들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환상'은 사회심리학에서 관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Taylor와 Brown(1988)의 관례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한 평가가 타인에 대한 평가보다 긍정적일 때, 이러한 자기고양지각을 환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 사람들은 자신의 친한 친구를 다른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친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보다 덜 책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집단고양편향(group serving bias)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자신과 친한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가치(self-worth)를 고양시키고(Cialdini, Borden, Thome, Walker, Freeman, & Sloan, 1976; Tesser, Campbell, & Smith, 1984), 긍정적인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Lemyre & Smith, 1985).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 본 논문에서는 관계고양지각(relationship-serving perceptio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고양지각의 존재와 영향을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 중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고 있는가?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존재하는 관계고양지각이,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관계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고양지각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Taylor & Brown, 1988 참고).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관계고양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관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이다.

#### 친밀한 관계에서의 환상과 관계만족도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직관적으로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대안가설 또한 상당히 직관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환상의 적응적 가치에 대하여 그것의 적응적 가치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그것의 부작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Taylor와 Brown(1988)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환상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Colvin, Block 및 Funder(1995)는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확신, 즉 긍정적 환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 환상을 갖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파악하여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계의 장기적 측면에서 더 적응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관계가 진전되면서 상호간의 의존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계속 발견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Braiker & Kelley, 1979; Brehm, 1992; Kelley, 1979; Levinger, 1983).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 환상을 가졌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 더욱 클 것이고, 결국 관계만족도는 현저하게 저하되어 파국적인 결혼생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만족스런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점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e.g., Brickman, 1987; Swann, De La Ronde, & Hixon, 1994). 관계의 초기부터 상대방의 단점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후에 큰 갈등이 나타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적응하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이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 입장을 본 연구에서는 현실가설(reality hypothesi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은 관계만족도에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연애관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연애관계보다 더 만족스럽게 지속된다고 한다(Felmlee, Sprecher, & Bassin, 1990; Johnson & Rusbult, 1989; Simpson, 1987). 이러한 결과들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환상으로 인해 관계가 진전되면서 발

견하게 되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해석(reinterpret)하게 된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Murray & Holmes, 1993, 1994).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격특질이나 행동을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으로부터 내면의 동기와 의미를 추론한다(Gergen, Hepburn, & Fisher, 1986; Griffin & Ross, 1991). 그리고 이 과정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찾아냄으로써 상대방과의 갈등이 더 심각하게 진전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다(Bradbury & Fincham, 1990).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설은 환상가설(illusion hypothesi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관계고양지각이 관계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두 개의 대안가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 중 어느 가설이 더 타당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 본 연구 : 관계 환상의 문화 보편성과 부모-자녀관계로의 확장

관계고양지각의 적응적 가치에 대한 두 대안가설들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에 Murray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Murray, Holmes, & Griffin, 1996a). 이들은 캐나다의 결혼한 부부 및 미혼의 연애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실가설보다는 환상가설이 더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신의 배우자 및 연애상대에 대하여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볼수록 현재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자신들의 미래 관계에 대하여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배우자나 연애상대자를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와 동일시하는 이상화(idealization)과정이 매우 중요함이 밝혀졌다. 즉, 자신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상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관계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Murray 등의 연구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

에서 확장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이상형과 비슷하게 보려는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상화 경향성이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론 중에는 자신의 아이가 영재아일 가능성이 다른 사람의 아이가 영재아일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믿는 것이 포함된다(Weinstein, 1980).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며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의 바람일 것이다. 또한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더 이해심이 깊고 합리적이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직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지,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환상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느끼는 상호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답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는 지금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도 부부관계 혹은 연애관계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환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Murray 등이 확인한 이상화과정과 이것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존재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존재하는 긍정적 환상과 이것의 적응적 가치를 보고한 Murray 등의 연구가 서양인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를 한국인 부부에게 반복함으로써 문화적 보편성 혹은 문화적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의 긍정적 환상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서양인에 비하여 동양인에게는 자기고양지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 개관은 Endo, Heine & Lehman, 2000; Heine & Lehman, 1995; 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을 참조). 동양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독특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 그들과 크게 다름이 없는 평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어떤 특성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타인고양지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계고양지각(즉, 자신의 파트너를 자기 자신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동양인들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것이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Murray 등의 연구 결과는 한국인 부부에게서 더 강하고 분명하게 발견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증거 또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Heine와 Lehma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고양편향이 캐나다인에게서는 나타났지만 일본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연구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집단고양편향이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적 자존감을 고양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무리 동양인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자존감을 고양하려는 동기가 서양인보다 처음부터 약하기 때문에 집단고양편향 역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단고양현상도 사실상으로는 자기고양현상이기 때문에 집합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일본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Murray 등(1996a)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Murray 등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상화과정(즉, 자신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높게 설정하고 자신의 실제 배우자가 그 이상형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과정)의 출발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이상형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배우자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관계고양지각이 자기고양지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고양지각의 정도에서 서양인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동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자기고양 → 관계고양”의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환상이 이들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즉, 환상을 많이 가질수록 이들 부부관계에 대해 더 만족하는지, 반대로 더 불만족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론에서 언급한 현실가설과 환상가설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지

각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고양지각(즉, 긍정적 환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1) 전형적인 배우자보다 나의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2) 나의 배우자가 그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그 배우자를 더 높게 평가할 때, 3)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나의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리고 4) 나의 이상적인 배우자와 실제 배우자간의 차이를 작게 지각할 때.

## 방 법

### 실험참가자

총 50쌍의 부부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에게는 부부당 20,000원이 사례비로 지급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31.3세(남자 32.2세, 여자 30.4세)였고, 평균 결혼기간은 5.0년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부부 34쌍의 평균 자녀수는 1.6명이었다.

### 측정치

#### 배우자 평정 척도<sup>3)</sup>

실험참가자들은 25가지 특질 각각에 대하여 자기 자신, 자기의 실제 배우자, 이상적인 배우자, 그리고 전형적인 배우자를 9점 척도(1 :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 9 : 전적으로 사실임)상에서 평정하였다. 이 특질들은 긍정적인 속성 16가지(친절한, 비판적인, 자신감 있는, 사교적인, 지적인, 개방적인, 재치있는, 관대한, 합리적인, 이해심이 깊은, 수용적인, 따뜻한, 사교술이 좋은, 매력적인, 운동신경이 좋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와 부정적인 속성 9가지(게으른, 지배적인, 감정적인, 변덕스러운, 사려심이 없는, 냉담한, 불평을 자주 하는, 유치한, 전통적인)로 구성되었다.

#### 부부관계 만족도 척도<sup>4)</sup>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과 미래의 관계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이루어

- 2) 전형적인 배우자는 일반적인 모든 배우자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배우자 평정 척도는 Murray와 Choi(1999)의 미발표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졌다. 현재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9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9점 척도(1 :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 9 : 전적으로 사실임)상에서 평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 문장이 귀하의 부부 사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다음의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 \_\_\_\_\_ 나는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 \_\_\_\_\_ 나는 내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다.
- \_\_\_\_\_ 우리는 가끔 심각한 문제들로 다툰다.
- \_\_\_\_\_ 나는 내에 대한 내 배우자의 애정이 식는 것 같아 염려한다.
- \_\_\_\_\_ 내 배우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좋은 점들을 본다.

앞으로의 부부관계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1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9점 척도(1 : 다른 부부들에 비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 9 : 다른 부부들에 비해 훨씬 가능성이 높다)상에서 평정되었다. 관계의 전망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귀하 부부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문항들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건이 다른 부부들과 비교할 때 귀하 부부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다음의 척도를 이용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현재보다 우리들의 관계에서 우리 두 사람 모두 더 행복해 할 가능성
- \_\_\_\_\_ 우리가 헤어지거나 이혼할 가능성
- \_\_\_\_\_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관심해질 가능성

질문지를 작성할 때 부부들은 자기 배우자와 의논하거나 혹은 자기 배우자의 응답을 참고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받았다.

## 결과 및 논의

참가자들의 각 측정치들에 대한 평균값은 표 1에 제

- 4) 현재 부부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89문항과 부부관계 전망을 측정하기 위한 15문항은 Murray와 Choi(1999)의 미발표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시되어 있다. '자기(self)', '실제 배우자(real partner)', '이상적 배우자(ideal partner)', '전형적 배우자(typical partner)'에 대한 지표들은 부정적인 속성들에 대해 역코딩한 후에 평균하였다. '부부관계 만족도'의 지표도 같은 요령으로 계산되었다.

표 1. 성별에 따른 자기, 실제 배우자, 이상적 배우자, 전형적 배우자 및 부부관계 만족도의 평균값

	남성		여성	
	M	SD	M	SD
자기	5.58	.73	5.61	.87
실제 배우자	6.05	.83	5.99	.94
이상적 배우자	7.15	.62	7.40	.61
전형적 배우자	5.19	.70	5.08	.62
부부관계 만족도	6.64	.87	6.40	1.11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는 부부가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의 정도는 다음의 세 가지 지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지표는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과 전형적 배우자에 대한 평정간의 차이로서, 이 차이를 '전형차'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차이값이 정적으로 클수록 자신의 배우자가 전형적인 배우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대상: 전형적 배우자 대 실제 배우자) × 2(성별: 남성 대 여성)로 ANOVA를 실시한 결과, 전형적 배우자(M=5.14)와 실제 배우자(M=6.02)간 대상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98) = 80.46, p < .001$ . 이는 부부들이 전형적인 배우자보다 자신의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환상의 지표는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과 배우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정간의 차이로서, 이 지표를 '실제차'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 값이 정적으로 크다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를 실제로 배우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

로, 역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 1에서 남성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 남성의 배우자인 여성이 자신의 실제 배우자(남성)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역시 여성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이 자신의 실제 배우자(여성)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즉, 표 1의 '자기'와 '실제 배우자' 값을 남성/여성간에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 비교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M = 5.58)보다 그 남성의 배우자인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즉, 그 남편)에 대하여 내린 평가(M = 5.99)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t(49) = 3.00, p < .005$ , 여성의 경우에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M = 5.61)보다 그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이 자신의 실제 배우자(즉, 그 아내)에 대하여 내린 평가(M = 6.05)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9) = 4.13, p < .001$ .

세 번째 환상의 지표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실제 배우자에 대하여 내린 평가와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가간의 차이이며, 이 차이는 '자기차'라 부르기로 한다.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은 부부들이 자신보다는 자신의 배우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으로서 역시 배우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대상: 자기 대 실제 배우자) × 2(성별: 남성 대 여성) ANOVA를 실시한 결과 자기(M=5.60)와 실제 배우자(M=6.02)간 대상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98) = 20.17, p < .001$ . 즉,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배우자가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 번째 환상 지표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서, 내 배우자는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녀 모두 '전형적 배우자'(M=5.14) 혹은 '자기 자신'(M=5.60)보다 자신의 '실제 배우자'(M=6.02)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실제 배우자'는 '이상적 배우자'(M=7.28)에 비해서는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F(1, 98) = 243.33, p < .001$ , 이는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이상적인 배우자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전형적인 배우자나,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상적 배우자' - '실제 배우자' - '자기 자신' - '전형적 배우자' 순으로 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배우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위의 분석을 통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배우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전형적인 보통 배우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내리는 이러한 평가는 그 배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환상이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부부관계의 미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더 높고 자신의 결혼생활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가설과 정반대의 예언 또한 가능하다. 즉,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클수록, 실제 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경험하는 좌절과 실망 또한 크기 때문에 부부관계 만족도가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상반되는 위의 주장을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예언변수를 구성하였다. 첫째는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평정치에서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치를 뺀 값(이후 '이상차'라 지칭함)이다. 이 지표는 이상적 배우자와 실제 배우자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 차이값이 클수록 이상적인 배우자에 비하여 실제 배우자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긍정적인 환상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지표는 위에서 '전형차'라고 부른 것으로서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치에서 '전형적인 배우자'에 대한 평정치를 뺀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자신의 배우자를 전형적인 배우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환상의 수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지표는 위의 분석에서 '실제차'라고 부른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실제 배우자'에 대하여 내린 평정치에서 그 배우자가 '자기 자신'(즉, 표 1에서 '자기' 평정치)에 대하여 내린 평정

치를 뺀 값이다. 이 지표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배우자의 모습과 그 배우자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배우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환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지표는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정을 뺀 값으로, 위에서 '자기차'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 지표가 크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배우자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값이 클수록 역시 배우자에 대해 더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과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가져온다면, 이상차 지표는 부부관계 만족도 및 미래 전망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고 전형차와 실제차, 그리고 자기차 지표는 이들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대안가설이 타당하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 각 '환상' 지표들과 '만족도', '전망' 간의 단순 상관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환상 지표들과 부부관계 만족도간의 상관

	이상차	전형차	실제차	자기차	만족도	전망
이상차						
전형차	-.56**					
실제차	-.50**	.47**				
자기차	-.55**	.50**	.34**			
만족도	-.57**	.56**	.47**	.31**		
전망	-.48**	.45**	.41**	.22*	.84**	

'이상차' 지표 = 이상적 배우자 - 실제 배우자

'전형차' 지표 = 실제 배우자 - 전형적 배우자

'실제차' 지표 = 실제 배우자 - 배우자의 자기

'자기차' 지표 = 실제 배우자 - 자기

\*\* $p < .001$  \* $p < .05$

표 2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은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또한 부부관계를 보다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차 지표는 만족도 및 전망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전형차, 실제차 및 자기차 지표는 두 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배우자가 이상적인 배우자에 근접하다고 생각할수록, 전형적인 배우

자보다 더 낮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배우자를 평가할수록,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보다 배우자가 더 낮다고 생각할수록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더 높고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더 낙관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환상의 경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우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긍정적 환상이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 환상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환상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특히 자신의 배우자를 이처럼 이상화하려는 경향의 출발점은 무엇이고 이런 이상화 경향이 어떻게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일련의 경로분석(path analysis) 모형이 개발되어 검증되었다. 경로분석에 사용된 첫 번째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평가할 때, 배우자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투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이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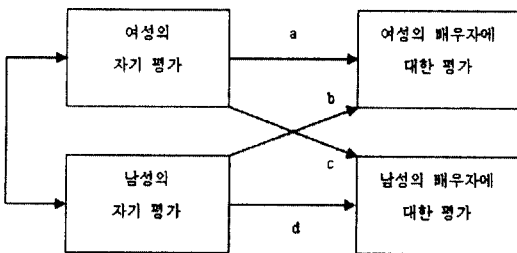


그림 1. 배우자에 대한 평가: 자기 투영 모형

이 모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남성을 '철수'라 하고 여성을 '영희'라 하자. 이 모형에서 경로 b와 c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철수의 자기 평가 혹은 영희의 자기 평가)에서 '상대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영희의 철수에 대한 평가 혹은 철수의 영희에 대한 평가)로 가는 경로로서 어떤 사람의 실제 모습이 그 사람의 배우자가 그 사람에 대해 내린 평가에 반영되는 '실제 경로

(reality path)'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로 a와 d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철수의 자기 평가)가 그 사람이 '배우자'에 대하여 내린 평가(철수의 영희에 대한 평가)로 투영되는 것으로 '투영 경로(projection path)'라 할 수 있다. 각 경로의 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모든 경로가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배우자의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따라 상대가 그 배우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지만(경로 b와 c: 실제 경로),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평가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경로 a와 d: 투영 경로). 이것은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해 평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3. 배우자에 대한 평가: 자기 투영

배우자 평가에 대한 예측	계수	t
실제 경로		
b	.314	2.41*
c	.553	5.26***
투영 경로		
a	.306	2.41*
d	.321	3.04**

GFI = .98 (1, N = 50) = 2.63, ns.

\*\*\*p < .001 \*\*p < .01 \*p < .05

각 경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1을 참조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의 '자기'에 대한 평가와 '배우자'에 대한 평가의 중간에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매개변수로 추가한 것으로서, 이것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첫 번째 경로분석에서 밝혀진 결과(즉,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가 직접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의 기준도 높게 설정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배우자 역시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실제 배우자가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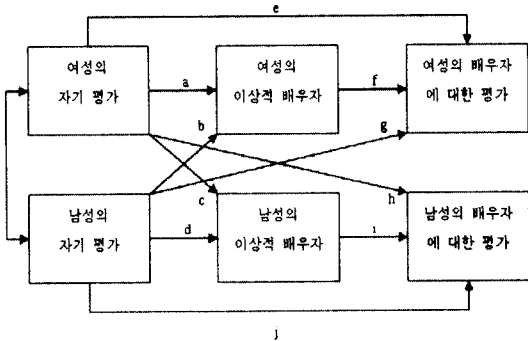


그림 2. 배우자에 대한 평가 : 이상적 배우자 투영 모형

이 모형에서 경로 b와 c는 배우자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서 '상대의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평가로 가는 경로로서 배우자의 실제 모습이 상대의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에 반영되는 '반영 경로(reflection path)'라 할 수 있고, 경로 a와 d는 '자기'에 대한 평가에서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평가로 가는 경로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에 투영시키는 '투영 경로(projection path)'라 할 수 있다. 다음, 경로 g와 h는 첫 번째 모형의 경로 b와 c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실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상대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로 반영되는 '실제 경로(reality path)'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경로 e와 j는 첫 번째 모형의 경로 a와 d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 투영되는 '자기 투영 경로(self projection path)'이고, 경로 f와 i는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 투영되는 '이상형 투영 경로(ideal partner projection path)'이다. 각 경로의 계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자기'에서 '이상적 배우자'로 가는 네 가지 경로 중 여성의 '자기'에서 '이상적 배우자'로 가는 경로 a를 제외한 세 가지 경로(경로 b와 c : 반영 경로, 경로 d : 투영 경로)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단, 경로 c는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그 사람의 배우자가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높게 설정하는 것을 보여주며(경로 b와 c), 또한 남성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이상적인 배우자상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로 d). 다

표 4. 배우자에 대한 평가 : 이상적 배우자 투영

	계수	t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예측		
반영 경로	b	.432 3.37**
	c	.185 1.55†
투영 경로	a	.096 ns
	d	.500 4.18**
배우자 평가에 대한 예측		
실제 경로	g	.227 1.65†
	h	.470 5.07**
자기 투영 경로	e	.287 2.30*
	j	.100 ns
이상형 투영 경로	f	.201 1.46†
	i	.448 4.16**

GFI = .97 (4, N = 50) = 4.65, ns.

\*\*p < .001 \*p < .05 †p < .10

각 경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2를 참조

음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이상적 배우자'에서 '실제 배우자'로 가는 '이상형 투영 경로(경로 f와 i)'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단, 경로 f는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상이 높을수록 실제 배우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높게 설정해 놓고 자신의 실제 배우자를 이에 상응할만한 수준으로, 즉, 실제 이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남성의 경우 이처럼 '투영 경로(경로 d)'와 '이상형 투영 경로(경로 i)'가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첫 번째 모형에서 유의미한 정적 계수를 나타냈던 '자기'에서 '배우자'로 가는 '자기 투영 경로(경로 j, 첫 번째 모형에서는 경로 d)'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은 '이상적 배우자'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성의 경우,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결국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높은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즉, 실제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남편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이상적인 남편상을 높게 설정하고 그렇게 높게 설정한 이상형을 자신의 남편에게 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자신의 평가가 위와 같은 매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남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경로 e).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두 번째 모형에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하여 '자기'와 '이상적 배우자',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구성되었다. 경로 a부터 j까지는 앞의 두 번째 모형과 동일하며, 결과 역시 동일하다. 추가된 경로 중, 경로 k와 t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고, 경로 n과 q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상대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다음, 경로 l과 s는 '이상적 배우자'상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고, 경로 m과 r은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o와 p는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상대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 주는 경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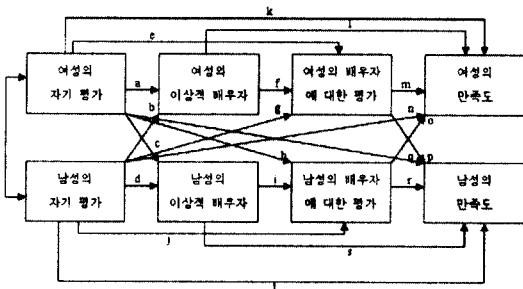


그림 3. 부부관계 만족: 환상의 투영과 실제의 반영 모형

분석 결과,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는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하였다(경로 t).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상대 배우자가 부부관계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경로 n과 q). 즉, 전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부부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상적 배우자'에서 '만족도'로 직접 가는 경로인 경로 l과 s 역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높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관계만족도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서 자신의 '부부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 m과 r,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서 남성의 '부부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 p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남성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 o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두 번째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기'에서 '이상적 배우자'로, 그리고 '이상적 배우자'에서 '실제 배우자'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다는 사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실제 배우자에게 투영하여 실제 배우자를 긍정적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이 결국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경로에 대한 계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부부관계 만족: 환상의 투영과 실제의 반영

만족도에 대한 예측	계수	t
실제 경로		
k	.064	ns
r	.410	3.77**
n	-.032	ns
q	-.050	ns
투영 경로		
l	.003	ns
s	-.151	ns
m	.773	8.26**
r	.543	3.91**
o	.068	ns
p	.182	1.84*

GFI = .96 (7, N = 50) = 9.91, ns.

\*\*p < .001 \*p < .05

각 경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3을 참조

모형 1, 2 및 3을 종합해 볼 때, 부부들이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투영하여 배우자를 실제 모습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긍정적 평가, 즉, 환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러한 환상이 부모-자녀관계에서 상호 지각하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의 절차 및 결과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연구 1에서와 동일하다.

## 방법

### 실험참가자

총 27 가족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한 가족 당 자녀 한 명과 부모 두 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에게는 가족당 15,000원이 사례비로 지급되었다.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21.8세였고, 아버지들의 평균 나이는 54.6세, 어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50.7세였으며, 자녀들의 성별은 여자가 18명, 남자가 8명이었다. 자녀들의 성별에 따른 표본 크기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후 보고되는 분석에서는 아들과 딸의 반응을 구분하지 않았다.

### 측정치

#### 부모(자녀) 평정 척도<sup>5)</sup>

실험참가자들 중 자녀는 자녀용 질문지를, 부모는 부모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녀용 질문지에서는 자기 자신, 실제 부모, 이상적인 부모, 전형적인 부모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고, 부모에 대해 평정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별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서는 자기 자신, 실제 자녀, 이상적인 자녀, 전형적인 자녀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고, 실제 자녀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자신의 자녀 모두에 대해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녀에 국한하여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질문지에는 자녀에 대해

평정하는 속성 10가지와 부모에 대해 평정하는 속성 10가지, 총 20가지의 속성이 사용되었다. 자녀 평정 척도는 긍정적인 속성 5가지(정직한, 예의바른, 리더십이 뛰어난, 대인관계가 원만한, 총명한)와 부정적인 속성 5가지(끈기가 없는, 게으른, 책임감이 없는, 산만한, 우유부단한)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자녀가 스스로에 대해 평정할 때와 부모가 자신의 자녀, 이상적인 자녀, 전형적인 자녀를 평정할 때 사용되었다. 부모 평정 척도는 긍정적 속성 5가지(너그러운, 개방적인, 현명한, 다정한, 이해심이 깊은)와 부정적 속성 5가지(신경질적인, 비합리적인, 지배적인, 냉담한, 무능한)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 평정할 때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전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평정할 때 사용되었다. 모든 속성은 9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척도<sup>6)</sup>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현재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을 묻는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역시 9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였다.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모는 자신의 자녀 모두와의 관계에 대해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녀에게 주어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질문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다음 문장이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 사이를 얼마나 잘 기술하는지 다음의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 |       |       |   |
|-------|-------|---|
| _____ | _____ | 나는 나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
| _____ | _____ | 나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다.         |
| _____ | _____ | 나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내가 하는                      |

5) 부모 평정 척도와 자녀 평정 척도는 사전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를 평가할 때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질들을 조사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6)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척도에 사용한 문항들은 연구 1의 부부관계 만족도 척도를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에 적합한 문항들을 추출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알맞은 문항들을 최종 선택하였다.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

다음은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질문의 구체적인 예이다.

- 다음 문장이 귀하와 귀하의 자녀 사이를 얼마나 잘 기술하는지 다음의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 \_\_\_\_\_ 나는 나의 아들 혹은 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 \_\_\_\_\_ 나의 아들 혹은 딸은 늘 나의 생활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
  - \_\_\_\_\_ 나는 종종 아들 혹은 딸과 심각한 문제들로 다툰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 부모와 자녀는 서로 의논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응답을 참고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 결과 및 논의

표 6에는 부모와 자녀의 각 측정치들에 대한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자기', '실제 자녀(부모)', '이상적 자녀(부모)', '전형적 자녀(부모)'에 대한 지표들은 5가지 부정적인 속성들의 평정에 대해 역 코딩한 후 10가지 속성들을 평균하였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대한 지표 역시 10가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 역 코딩한 후 20문항을 평균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평정치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혹은 전형적인

표 6. 부모와 자녀의 자기, 실제 자녀(부모), 이상적 자녀(부모), 전형적 자녀(부모)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평균값

	부모*		자녀†	
	M	SD	M	SD
자기	6.33	.80	5.88	.83
실제 자녀(부모)	7.27	.96	6.56	.93
이상적 자녀(부모)	7.83	.75	7.63	.72
전형적 자녀(부모)	7.16	.95	6.04	1.14
관계만족도	6.96	.75	6.78	1.10

\* 부모의 경우: 실제 자녀, 이상적 자녀, 전형적 자녀에 대한 평정치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평정치

† 자녀의 경우: 실제 부모, 이상적 부모, 전형적 부모에 대한 평정치와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평정치

자녀, 이상적인 자녀)에게 내린 평정치를 평균하여 계산하였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평정치들은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각각 내린 평정치를 평균하여 제시하였다.7) 관계만족도에 대한 평정치들도 같은 요령으로 계산되었다.

###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긍정적 환상

연구 1에서 부부관계에서 존재하는 환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도 환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환상의 정도를 부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형차', '실제차', '자기차'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형차' 지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2(대상: 전형적 자녀 혹은 부모 대 실제 자녀 혹은 부모) × 2(주체: 부모 대 자녀)로 ANOVA를 실시한 결과, 전형(M=6.62)과 실제(M=6.92)간 경계선 수준에서 대상의 주효과가 있었다,  $F(1, 51) = 3.26, p = .07$ . 이는 부모와 자녀 서로가 전형적인 자녀 혹은 부모보다는 자신의 자녀 혹은 부모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 < 1$ .

두 번째 지표인 '실제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6에서 부모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 부모의 자녀가 자신의 실제 부모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상호 비교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 자녀의 부모가 실제 자녀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상호 비교하였다. 즉, 표 6의 '자기' 지표와 '실제' 지표를 부모/자녀간에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자녀가 자기에 대하여 평가한 것(M = 5.88)보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 대하여 평가한 것(M = 7.27)이 유의미하게 더 높고,  $t(26) = 5.88, p < .001$ , 부모가 자기에 대해 평가한 것(M=6.33)보다 자녀가 자기의 부모에 대해 평가한 것(M=6.56)이 역시 경계선 수준에서

7)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료, 그리고,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시할 경우 자료의 제시가 다소 복잡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이 자료들을 평균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신저자(icho@snu.ac.kr)에게 문의바람.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25) = 1.43$ ,  $p = .10$ . 즉,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의 자녀 혹은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 지표인 '자기차' 지표로 서로에 대한 환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2(대상: 자기 대 실제 자녀 혹은 부모) × 2(주체: 부모 대 자녀)로 ANOVA를 실시하였을 때, 자기( $M=6.12$ )와 실제( $M=6.92$ ) 간 대상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51) = 34.76$ ,  $p < .001$ .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모두 상대가 자기 자신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의 경우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평정에 사용된 항목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속성의 경우, 자녀 평정 질문지에서는 정직한, 예의바른, 리더쉽이 뛰어난, 대인관계가 원만한, 우유부단함과 같은 속성들이 사용되었고, 부모 평정 질문지의 경우는 너그러움, 개방적인, 현명한, 다정한, 이해심이 깊은과 같은 속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자기차'는 의미있는 환상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환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나 자녀들은 '전형적 자녀(부모)'( $M=6.62$ )보다 자신의 '실제 자녀(부모)'( $M=6.92$ )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모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자녀(부모)'는 '이상적 자녀(부모)'( $M = 7.73$ )에 비해서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F(1, 51) = 40.34$ ,  $p < .001$ .

#### 서로에 대한 환상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위의 분석을 통하여 부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환상이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1의 부부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 클수록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환상이 클수록 서로에 대한 만족이 커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세 지표를 구성하였다. 부모의 경우 '이상차' 지표는 '이상적 자녀'에 대한 평정치에서 '실제 자녀'에 대한 평정치를 뺀 값으로, 이상적인 자녀와 실제 자녀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전형차' 지표는 '실제 자녀'에 대한 평정치에서 '전형적 자녀'에 대한 평정을 뺀 값으로 자신의 자녀를 전형적인 자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음, '실제차' 지표는 어떤 부모가 자신들의 '실제 자녀'에 대하여 내린 평정치에서 그들의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정치를 뺀 값으로,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습과 그들의 자녀가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습간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자녀의 경우 '이상차' 지표는 '이상적 부모'에 대한 평정치에서 '실제 부모'에 대한 평정치를 뺀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자신의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고, '전형차' 지표는 '실제 부모'에 대한 평정치에서 '전형적 부모'에 대한 평정을 뺀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자신의 부모가 전형적인 부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실제차' 지표는 어떤 자녀가 자신의 '실제 부모'에 대하여 내린 평정치에서 그의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정치를 뺀 값으로,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만약 환상가설이 옳다면 이상차는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그리고 전형차와 실제차는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이고, 현실가설이 옳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세 가지 '환상' 지표들과 '만족도'간의 단순 상관계수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갖는 것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상차 지표는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전형차와 실제차 지표는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녀(부모)가 이상적인 자녀(부모)에 근접하다고 생각할수록, 전형적인 자녀(부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수록, 실제 자녀(부모)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상대를 평가할수록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서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7. 환상 지표들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간의 상관

	이상차	전형차	실제차	만족도
이상차				
전형차	-.45*			
실제차	-.60*	.24†		
만족도	-.41*	.46*	.45*	

‘이상차’ 지표 = 이상적 자녀(부모) - 실제 자녀(부모)  
 ‘전형차’ 지표 = 실제 자녀(부모) - 전형적 자녀(부모)  
 ‘실제차’ 지표 = 실제 자녀(부모) - 자녀(부모)의 자기  
 \* $p < .01$  †  $p < .10$

부모와 자녀간 서로에 대한 환상의 경로

평균 비교와 상관 분석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인 환상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긍정적인 환상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1의 부부관계에서는 이러한 환상의 근원이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관계에서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1과 같은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을 위한 모형은 연구 1의 부부관계에서의 모형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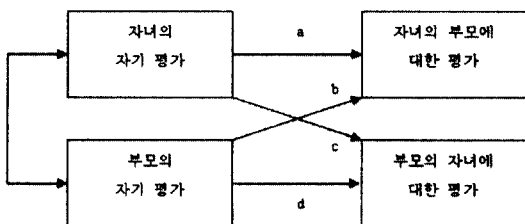


그림 4.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 자기 투영 모형

그림 4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하여 평가할 때 서로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투영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첫 번째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에서 경로 b는 부모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하여 내린 평가로 가는 경로이고 경로 c는 자녀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내린 평가로 가는 경로로서, 어떤 사람의 실제 모습이 그 사람의 부모 혹은 자녀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린 평가에 반영되는 ‘실제 경로’이다. 다음으로, 경로 a는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가에서 부모에 대하여 내린 평가로 가는 경로이고, 경로 d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가에서 자녀에 대하여 내린 평가로 가는 경로로서, 자신의 모습을 상대의 모습에 투영시키는 ‘투영 경로’이다. 이 모형의 각 경로의 계수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실제 경로’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가에 따라 그들의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하여 내린 평가는 달라지지만(경로 b,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미),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가는 그의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내린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 c). 그러나, ‘투영 경로’인 경로 a와 d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로 d의 경우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경향성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해 평가할 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

표 8.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 자기 투영

부모(자녀) 평가에 대한 예측	계수	t
실제 경로	b	.355 1.75†
	c	.083 ns
투영 경로	a	.530 3.55*
	d	.364 1.66†

GFI = .99 (1, N = 27) = .97, ns.

\* $p < .001$  †  $p < .10$

각 경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4를 참조

시 말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자신의 부모 혹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 1의 부부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의 '자기'에 대한 평가와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의 중간에 '이상적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를 매개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이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을 통해서 부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하여 평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대를 '이상화'함으로써 긍정적인 환상을 갖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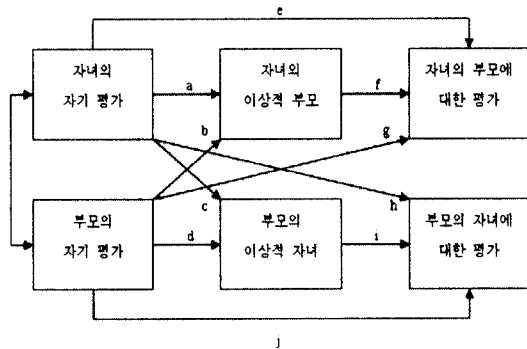


그림 5.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 : 이상적 부모(자녀) 투영 모형

두 번째 모형의 각 경로들은 연구 1의 부부관계에서와 같다. 각 경로의 계수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자기'에 대한 모습을 '이상적 부모(자녀)'에 투영시키는 투영 경로 a와 d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적 부모상 혹은 이상적 자녀상 역시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부모의 '자기' 평가에서 자녀의 '이상적 부모'로 가는 경로 b 역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볼수록 그들의 자녀는 이상적인 부모상을 높게 설정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자기' 평가에서 부모의 '이상적 자녀'로 가는 경로 c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이상적 부모'에서 '실제 부모'에 대한 평가로 가는 경로 f와 부모의 '이상적 자녀'에서 '실제 자녀'에 대한 평가로 가는 경로 i가 모두 경계선 수준에

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상 혹은 자녀상이 높을수록 실제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상형을 높게 설정해 놓고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를 이에 상응할만한 수준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경우, '투영 경로(경로 d)'와 '이상형 투영 경로(경로 i)'가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첫 번째 모형에서 유의미한 정적 계수를 나타냈던 '자기'에서 '실제 자녀'로 가는 '자기 투영 경로(경로 j, 첫 번째 모형에서는 경로 d)'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은 '이상적 자녀'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상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결국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러한 높은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즉, 실제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자녀의 경우는, 자녀 자신의 평가가 위와 같은 매개에 의해 부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동시에 자녀의 자기 평가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경로 e).

표 9.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 : 이상적 부모(자녀) 투영

	계수	t	
이상적 부모(자녀)에 대한 예측			
반영 경로	b	.357	2.57*
	c	.020	ns
투영 경로	a	.337	3.09**
	d	.398	2.43*
부모(자녀) 평가에 대한 예측			
실제 경로	g	.216	ns
	h	.091	ns
자기 투영 경로	e	.412	2.61*
	j	.189	ns
이상형 투영 경로	f	.321	1.56†
	i	.440	1.78†

GFI = .97 (4, N = 27) = 2.52, ns.

\*\*p < .001 \*p < .01 † p < .10

각 경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5를 참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두 번째 모형에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하여, '자기'에 대한 평가, '이상적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 '실제 부모(자녀)'에 대한 평가가 서로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그림 6과 같이 구성되었다. 각 경로는 연구 1의 부부관계에서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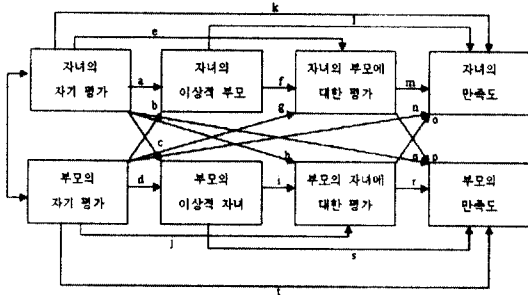


그림 6. 부모-자녀관계 만족 : 환상의 투영과 실제의 반영 모형

분석 결과,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경로 k와 t),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경로 n과 q).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상적 부모(자녀)'에서 '만족도'로 직접 가는 경로인 경로 l과 s 역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연구 1의 부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부모(자녀)상을 높게 설정하는 것 자체는 관계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평가가 자녀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인 경로 m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평가가 부모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인 r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를 두 번째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기'에서 '이상적 부모(자녀)'로, '이상적 부모(자녀)'에서 '실제 부모(자녀)'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던 사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상적 부모(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이상적인 부모(자녀)에 대한 기대를 실제 부모(자녀)에게 투영하여 실제 부모(자녀)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각 경로에 대한 계수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부모-자녀관계 만족 : 환상의 투영과 실제의 반영

만족도에 대한 예측	계수	t
실제 경로		
k	.214	1.64†
t	.250	1.76†
n	-.084	ns
q	-.019	ns
투영 경로		
l	.027	ns
s	.159	ns
m	.535	5.10*
r	.373	3.20*
o	.075	ns
p	.106	ns

GFI = .97 (7, N = 27) = 8.19, ns.

\* $p < .001$  † $p < .10$

각 경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6을 참조.

세 모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상적인 부모(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실제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이러한 높은 기준에 따라 실제 이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하여 이와 같은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연구 1에서 밝혀진 부부관계에서의 환상과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의 주요한 목표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 환상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환상이 관계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전형차, 실제차, 자기차 지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사람들은 전형적인 배우자보다 자신의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배우자를 더 높게 평가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환상은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경로분석의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배우자에 대한 이상화과정이 개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를 이상적 기준에 맞추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관계고양지각의 출발이 자기고양지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관계고양지각이 부모-자녀관계로 확장되었을 경우에도 존재하며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만족도에도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즉, 부모와 자녀는 모두 전형적인 부모 혹은 자녀보다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모 혹은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그들의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를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상적인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한 기준이 높고 이에 따라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를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부모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대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환상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만족도'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도 혹은 상대의 결점에 대한 수용정도 등과 같은 지표를 추가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8)</sup>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 1과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urray 등(1996b)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두 집단 모두 배우자에 대하여 환상을 지니고 있고 자신에 대한 평가와 배우자에 대한 이

상화과정이 관계만족도에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캐나다인들보다 전반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더 낮게 평가하였고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양인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고양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관계고양지각도 한국인보다 그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척도에서 극단값을 피하는 한국인의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평정에서는 한국인이나 캐나다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다. 두 문화 모두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실제 배우자를 평정할 때는 한국인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Murray 등(1996b)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캐나다인과 한국인의 자기, 실제 배우자, 이상적 배우자 및 부부관계 만족도의 평균값

	캐나다(n = 82명)		한국(n = 50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기	6.18	6.30	5.58	5.61
실제 배우자	6.40	6.61	6.05	5.99
이상적 배우자	7.16	7.53	7.15	7.40
부부관계 만족도	7.97	8.04	6.64	6.40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현실가설과 환상가설 중에서 환상가설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환상가설이 더 확실히 검증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진전되면서 상대방에 대해 지니는 환상과 만족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Felmlee, et al., 1990; Murray, et al., 1996b).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단적으로 알아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종단연구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자녀의 경우,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를 따르고 좋아하지만,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어렸을 때 지녔

8) 이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원망하며 반항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다시 부모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자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자녀를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마련이지만, 자녀가 점점 성장해가고 자신의 기대에 자녀가 미치지 못할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해 더 이상 환상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평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단연구법은 관계교양지각과 만족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더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상관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비록 경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였지만 여전히 자료 자체는 상관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한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종단연구를 실시하면 관계교양지각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2의 경우는 후속연구에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2에서는 표본의 크기 때문에 자녀를 아들과 딸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의 관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에 대하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이 차이는 아들과 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일한지, 그리고 아들과 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등은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Alic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Allison, S. T., Messick, D. M., & Goethals, G. R. (1989). On being better but not smarter than others : The Muhammad Ali effect. *Social Cognition*, 7, 275-296.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Bradley, G. W. (1978).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 A reexamination of the fact or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917-927.

Braiker, H. B., & Kelley, H. H. (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L. Burgess & T.L.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pp. 135-168). New York : Academic Press.

Brehm, S. S. (1992).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 McGraw-Hill.

Brickman, P. (1987). *Commitment, conflict, and caring*.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4, 353-376.

Campbell, J. D. (1986). Similarity and uniqueness : The effects of attribute type, releva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81-294.

Cialdini, R. B., Borden, R. J., Thorne, A., Walker, M. R., Freeman, S., & Sloan, L. R. (1976). Basking in reflected glory : Three (football) fiel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366-375.

Codol, J. P. (1975). On the so-called "superior conformity of the self" behavior : Twenty experimental investig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457-501.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Conway, M., & Ross, M. (1984). Getting what you want by revising what you h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38-748.
- Crary, W. G. (1966). Reactions to incongruent self-experienc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246-252.
- Cross, P. (1977). Not *can* but *will* college teachers be improve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7, 1-15.
- Dunning, D., Meyerowitz, J. A., & Holzberg, A. D. (1989). Ambiguity and self-evaluation : The role of idiosyncratic trait definitions in self-serving assessments of 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82-1090.
- Endo, Y., Heine, S. J., & Lehman, D. R. (2000). Culture and positive illusions in close relationships : How my relationships are better than you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571-1586.
- Erdelyi, M. H. (1974). A new look at the new look : Perceptual defence and vigilance. *Psychological Review*, 81, 1-25.
- Felmlee, D., Sprecher, S., & Bassin, E. (1990). The dissolution of intimate relationships : A hazard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3-30.
- Gergen, K. J., Hepburn, A., & Fisher, D. C. (1986). Hermeneutics of personality descri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61-1270.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S. Wyer & T.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Hillsdale, NJ : Erlbaum.
- Griffin, D. W., & Ross, L. (1991). Subjective construal, social inference and human misunderstanding.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319-359.
- Hall, J., & Taylor, S. E. (1976). When love is blind. *Human Relations*, 29, 751-761.
- Harackiewicz, J. M., Sansone, C., & Manderlink, G. (1985). Competence, achievement orient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 A proces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493-508.
- Headey, B., & Wearing, A. (1987). The sense of relative superiority-central to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497-516.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Johnson, D. J., & Rusbult, C. E. (1989). Resisting temptation : Devaluation of alternative partners as a means of maintaining commitmen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967-980.
- Kelly, H. H. (1979). *Personal relationships : Their structures and processes*. Hillsdale, NJ : Erlbaum.
- Kuiper, N. A., & Derry, P. A. (1982).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self-reference in mil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50, 67-79.
- Kuiper, N. A., & MacDonald, M. R. (1982). Self and other perception in mild depressives. *Social Cognition*, 1, 233-239.
- Kuiper, N. A., Olinger, L. J., MacDonald, M. R., & Shaw, B. F. (1985). Self-schema processing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 The effects of vulnerability on depression. *Social Cognition*, 3, 77-93.

- Larwood, L., & Whittaker, W. (1977). Managerial myopia : Self-serving biases in organizational plan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194-198.
- Larwood, L. (1978). Swine flu : A field study of self-serving bia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283-289.
- Lemyre, L., & Smith, P. M. (1985).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60-670.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 Plenum.
- Levinger, G. (1983). Development and change. In H.H. Kelley, E. Berschied, A. Christensen, J.H. Harvey, T.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A. Peplau, & D.R. Peterson (Eds.), *Close relationships* (pp. 315-359). New York : Freeman.
- Lewicki, P. (1984). Self-schema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77-119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essick, D. M., Bloom, S., Boldizar, J. P., & Samuelson, C. D. (1985). Why we are fairer than oth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480-500.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attribution of causality :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urray, S. L., & Choi, I. (1999). Unpublished raw dat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Murray, S. L., & Holmes, J. G. (1993). Seeing virtues in faults : Negativ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personal narrative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07-722.
- Murray, S. L., & Holmes, J. G. (1994). Story-telling in close relationships : The construction of confi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663-676.
- Murray, S. L., & Holmes, J. G. & Griffin, D. (1996a). The benefits of positive illusions : Ide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9-98.
- Murray, S. L., & Holmes, J. G. & Griffin, D. (1996b). The self-fulfilling nature of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 Love is not blind, but presc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155-1180.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osenblatt, R. (1993, December 21). The 11th commandment. *Family Circle*, pp. 30-32, 45.
- Ross, M., & Fletcher, G. J. O. (1985). Attribution and social perception.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pp. 73-122). Reading, MA : Addison-Wesley.
- Simpson, J.A.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 Swann, W. B., De La Ronde, C., & Hixon, J. G. (1994). Authenticity and positive strivings in marriage and court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57-869.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Koivumaki, J. H. (1976). The perception of self and others : Acquaintanceship, affect, and actor-observer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03-408.
- Tesser, A., Campbell, J., & Smith, M. (1984). Friendship choice and performance : Self-evaluation maintenance

nance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6-574.

Tetlock, P. E., & Levi, A. (1982). Attribution bias : On the inconclusiveness of the cognition-motivation debat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68-88.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Zuckerman, M. (1979).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revisited, or : The motivational bias is alive and well in attribu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47, 245-287.

## **The Effect of Relationship-Serving Perception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 In Case of Marriage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inhee Choi, Minkyung Koo and Incheol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well documented in social psychology that individuals are better off when they view themselves positively -- even unrealistically. The present research expanded this finding to the domai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ested the hypothesis that marriage couples (Study 1) and parents and child (Study 2) would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s when they view their spouses (Study 1) / parents or child (Study 2) positively. Study 1 demonstrated that marriage couples possessed a set of positive illusions about their spouses and that those illusions affected their marriage satisfaction. Study 2 obtained the same finding to that of Study 1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relationship-serving perceptions, relationship satisfaction, idealization, positive illusions**

원고접수 : 2002년 10월 1일

심사통과 : 2002년 11월 8일